재팬모터앤드제너레이터(JMG) 고압전동기, 중용량발전기 등 내년 3월 출하

히타치제작소, 후지전기, 明電舍 등 3社가 지난 7월에 설립한 고압전동기와 중소용량발전기 개발 합병회사인 재팬모터앤드제너레이터(JMG)는 개발품의 제1탄으로서 내년 3월까지 용량 1,000kW와 2,000kW의 고압전동기와 1,000KVA와 2,000KVA의 중용량발전기 등 합계 4기종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대용량전동기에서 제조를 포함하여 선행하고 있는 도시바와 미쓰비시전기의 합병회사에 대항할 계획이다.

JMG는 히타치 출신자 12명, 후지 및 명전사 출신 각각 8명씩 모두 28명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사업을 개시했다.

히타치의 日立事業所 山手工場내에 개발부대를 고압전동기그룹, 중소용량발전기그룹, 절연그룹, 생산그룹의 4개로 나눠 각각의 그룹에 각사의 출신이 반드시 포함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사업영역으로 하는 고압전동기와 중소용량발전기는 많은 사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전개에 있어서는 우선 견고한 사양이 요구되는 산업분야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소형·경량화, 고성능화, 저코스트화를 도모, 경쟁력강화를 목표한다.

그 개발품의 검토는 생산그룹을 중심으로 각사의 제조라인 체크로부터 스타트.

각각 특징이 있는 제조방식을 비교하면서 정합성을 가지고 각사의 라인을 어떻게 사용할까 연구, 최대한 효율적인 제조방법을 검토중이다.

또 각 그룹에서도 각사가 지닌 노하우를 공개하여 소형경량화, 저코스트화, 고성능화를 염두에 두면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용 대용량전동기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시바와 미쓰비시전기가 개발·제조 합병회사로서 티엠에이일렉트릭(TMAE)을 설립, 출력 75kW 수준을 넘는 전동기를 양측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TMAE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시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 양그룹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다이헨 50만V 초고압변압기 關電 채용 승인

일본의 다이헨은 최근 50만V 초고압변압기술을 확립, 關西電力으로의 채용을 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전기 등

대형 중전기업체들의 독무대였던 전력회사에 대한 50만V 변압시장으로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50만V 변압기시장은 전력회사의 설비투자 억제의 영향으로 정체 기미가 있는데 향후의 제안 수주에 대해 同社가 선행메이커들이 쌓고 있던 성을 허물고 어떻게 추격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同社는 지금까지 일본의 전력회사에 63대, 수출용으로 148대의 초고압변압기를 납품했다.

용량 적으로는 일본 내에 대한 것이 20만 5000V·45만KVA, 해외에 대해서는 40만V·50만kVA가 최고 기종이었는데 변압기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력회사의 지도를 얻어 50만V급의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試作된 변압기는 단상3각철심, 주권선1각 구성을 채용했다.

최근 특성을 비롯해 내전압, 국부과열, 전위진동측정·이행전압측정, 유동대전, 장기신뢰성의 각종 검증시험을 종료했다.

당초 계획한 기획품질을 만족시켜 충분한 신뢰성을 지닌 변압기의 제작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간사이전력 자재부에 형식 채용신청을 해 그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얻어진 기술적 성과는 콤팩트화 및 저가격화 외에 △非標準波서지에 대한 절연강도해석기술 △저소음화기술 △유동대전관리치의 설정 △확폭형 탱크구조 △고정도전계·자계해석기술 등이다.

이 중 저소음화기술에 대해서는 '방음벽 없이도 설계치인 70데시벨을 밑도는 68데시벨을 달성했다'고 同社는 밝혔다.

이에 따라 同社는 실제 제품화에 있어서는 방음벽의 간소화나 생략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50만V 변압기의 개발에 대해 同社는 1996년부터 상세한 검토를 개시했다.

1997년에는 실규모 詩作器의 제작에 착수했으며, 1998년부터 각종 검증시험을 수행해 왔다.

규슈전력, 저풍압절연전선 개발

규슈전력은 66kV의 고압가공배전선으로 사용하는 저풍압절연전선을 전선메이커 2개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종래의 절연전선의 표면에 복수의 홈을 팜으로써 전선이 받는 풍압을 최대 36%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주의 강도가 억제돼 전주교체공사 등이 부분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사에 도입할 경우 연간 10억엔의 원가저감효과가 있다. 절연전선에의 실용화는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규슈전력에서는 이번에 개발한 저풍압전선을 11월부터 도입하고 있다.

개발한 저풍압절연전선은 골프 공의 표면에 가공된 딤플이 바람의 저항을 억제하는데 힌트를 얻어 절연전선의 표면에 홈을 18개 팠다. 홈의 깊이는 전선사이즈(표면적)가 200mm^{2}의 경우 0.48mm, 400mm^{2}는 0.44mm, 저풍압전선은 종래의 절연전선에 비해 풍속이 매초 40~50m의 경우, 200mm^{2}의 전선 크기로 17~25%, 400mm^{2}에서는 20~36% 풍압을 저감할 수 있다.

가격은 200mm^{2}가 1m당 480엔, 400mm^{2}가

875엔으로 종래의 절연전선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전선에 대한 풍압을 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주의 강도를 저감할 수 있어 전주의 공사비 등을 낮추게 된다.

규슈전력관내의 66kV의 고압가공 배전선은 연장으로 약 26만1천km에 이른다. 전주는 관내 총수로 약 220만본. 전주에는 길이나 강도에 의해 갖가지 종류가 있지만 전선과 전주자체가 받는 풍압하중에 의해 그 하중에 따른 일정 강도의 전주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선이 받는 풍압하중은 전주의 강도를 크게 좌우한다. 이 때문에 전선의 풍압을 저감할 수 있다면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태풍때의 설비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또 전주의 강도에 따라서는 풍속 매초 40m가 현행의 설계기준이 되고 있지만 규슈전력은 강풍지구 등에서는 45m, 50m에서도 견딜수 있는 전주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절전형 기기 반덤핑 결정으로 타격

금년초부터 신문지상을 통해 EU의 반덤핑제소 행위를 거의 협박에 가깝도록 맹비난해 오면서 EU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해 왔던 중국측 염원이 공염불로 끝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제소를 받는 나라, 그래서 반덤핑에 이골이 난 중국에 이번에는 금년 6월에 결정된 절전형 전등기구에 대한 반덤핑 결정을 EU가 확정,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중국측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 여파로 절전형 전등기구를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로 갖고 있고 덤핑혐의 기업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광둥성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금년 3분기부터 대EU 수출량이 전 2분기의 2자리 상승과는 정반대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면서 반덤핑 효과를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덤핑 결정전만 하더라도 광둥성의 대EU 절전형 전등기구 수출은 2자리수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과거 3년간 2억2천만개, 2억7천만개, 2억9천만개 등으로 평균 20%의 성장세를 시현해 온 수출이 EU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6월부터 급속히 하강하기 시작해 금년 3분기까지는 수출량이 1억9,800만개에 불과해 결국 11.1%라는 하강세로 돌아선 것이다.

2자리수 성장세를 보이다가 2자리수 하강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격이다.

광둥성내에서도 특히 큰 피해를 본 기업은 가장 많은 절전형 전등기구를 생산, 수출하고 있는 심천中電照明公司로 매년 4천만달러 정도를 생산해 그 중 70%를 EU시장에 수출해 왔지만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EU 수출이 60%나 감소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EU에 의해 반덤핑관세부과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7개 중국회사들이 모두 금년 6월이후 최소 30% 이상 대EU 수출감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둥성은 수출부진 원인을 단하나로 좁히고 있다. 바로 반덤핑관세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금년 4월 4일 필립스를 필두로 한 EU 照明公司聯合會가 EU위원회에 중국 9개사 절전형 전등기구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설마했다.

그러나 덤핑 가능성이 있어 5월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EU가 1달도 채 되지 않는 6월 중순경 9개 업체에 대한 덤핑여부 심사결과 2개사는 덤핑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5개사는 일부 덤핑혐의가 인정되며 2개사는 명확한 덤핑혐의가 있는 중형으로 각사의 현지 절전형 전등기구 시장에 끼친 피해를 기준으로 30% 이상씩의 반덤핑관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을 때 적잖이 당황했다.

반덤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중국내 분위기에 따라 지금 심천 中電照明공사를 비롯한 7개업체가 전부 응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는데 원인제공을 중국에서 하는 것인 만큼 결과가 달리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대충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EU측이 금년 4월에 다행히 제소를 피한 중국 광둥성 심천지역에 소재하는 수개 절전형 전등기구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이미 제소가 접수되어 덤핑여부를 정밀 심사중이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덤핑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중국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전문가들조차 90% 이상이 아마 중국기업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로 비관적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정작 비관을 해야 할 쪽은 수출을 못하게 된 대EU 물량을 나눠가져야 할 주변국들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절전형 전등기구의 3대 수출시장은 아주, 북미, 그리고 EU인데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7개 업체 반덤핑결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돌려야 할 물량이 매년 4천만~5천만개 정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EU지역은 지금 수출을 줄여나가야 할 상황이고 미국 또한 반덤핑쪽이라면 만만한 상태가 아니라서 EU쪽 남는 물량을 소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동남아 시장이나 한국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내년 2월에 반덤핑혐의를 받을 후보군들의 물량까지 감안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더 큰 걱정을 해야 할 쪽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이라는 얘기로 이는 중국업체들에 대한 EU의 반덤핑 결정이 난 6월에 중국 전문가들이 대응책으로 제시한 정책대안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다.

중국은 지금 과잉생산으로 인해 수출이 막히면 내부에서 해결할 여력이 없고 다시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할 상황이다.

반덤핑에 강력하게 대응코자 하는 이유도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으로 이번 절전형 전등기구의 반덤핑 문제는 우리나라로서도 결코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폴란드, 전력망이용 서부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전력망을 통해 독일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의 에너지 독점 공급회사인 UES사가 밝혔다. UES의 아나톨리 쿠베스회장은 최근 벨라루스의 송전선 개통식에 참석, "전력수출 성공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서부 유럽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베스 회장은 "독일에 전력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은 모두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전력 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외국 전력회사들의 독일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전문기업인 셈프라 에너지사는 지난5월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서 전기판매를 개시했으며, 베를린과 뮌헨, 드레스덴 및 프랑크푸르트 등을 포함하는 대도시에까지 판매시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이외에도 프랑스의 EDF 등 유럽의 다른 전력유틸리티들도 독일전력 시장의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부르템부르크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독일의 전력 회사인 ENBW의 부분민영화 사업 동반자로 프랑스의 EDF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EDF의 독일 전력시장 진출에 대하여 독일의 다른 전력회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전력산업체들은 아직 자국의 전력시장을 대외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가 독일의 전력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ISO, 비상 발전설비 매수 승인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자위원회(ISO)는 최근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비상전력을 발전사업자로부터 매수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ISO의 패트릭 도린손(Patrick Dorinson) 대변인은 "위원회는 하절기 전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일시 첨두 발전설비에 대한 경영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내년 6월까지 규제 요건을 만족하면서 이들 발전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송전망의 약 75%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ISO는 에어컨 가동으로 전력수요가 최고에 도달하는 하절기 오후 대비 잉여 첨두 전력의 매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인구증가와 경제활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만한 신규 발전설비는 건설되지 않아 올 여름에는 사상 전례가 없는 31회의 예비 전력난 경보를 발령해야 했다. 하절

기 첨부 부하용 발전설비는 50MW급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들이기 때문에 ISO는 최소한 41기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ISO는 2001년 하절기에 약 5천M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할 영역의 기존 발전설비 지역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소규모 발전설비들의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대기특성위원회(AQB)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행정승인을 받기 위해 장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폴란드, 케이블시장 잠재력 크다

폴란드 케이블 수요는 '99년에 4억4,400만달러로 추정된다. 또한 '90년대들어 전기·전자산업의 성장과 통신 및 전력산업의 현대화로 케이블 수요가 늘고 있으며 제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지 케이블 시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져 2개 거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2개 기업이 총생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3개 기업을 합병한 Elektrim Kable(EK)이 52%, 2개사가 합병된 TeleFonika가 34%를 공급하고 있다. 생산품은 0.03mm의 에나멜 절연전선, 첨단 통신케이블 및 전선(광섬유 포함), 400kV 전력송신케이블, 선박 및 광산용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 다양하다.

현지 제품중에는 전력 케이블의 총생산의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력, 제조업 및 건설분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생산량은 13만4천t으로 전년동기대비 23.8% 대폭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폴란드는 전선의 주요 원료로 쓰이는 동(Copper) 생산량이 9위로 풍부한 원료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통신케이블은 생산비중이 15%로 높아졌고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의 발전과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전도체(Bare conductor)도 13%의 생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케이블 교역을 보면 '99년 수출액은 5억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입 또한 매년 증가해 '98년에는 전년대비 21.4%, '99년에는 2억6,600만 달러로 5.5% 증가했다.

주 수입대상국은 독일로 34%를 차지하며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 EU 국가에서 대부분 수입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0만달러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입품은 전체 시장규모의 11%로 많지 않으나 특수용도 케이블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특수조건에 사용 가능한 얇게 절연된 고압케이블은 폴란드 업체가 1개사에 불과해 시장개척 전략에 따라 진출성공 가능성은 높다.

또한 이동통신 관련 GSM 운영업체들에 자체 사용목적으로 케이블을 수입하거나 현지 투자한 외국계 업체들이 제조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관세는 제품에 따라 다른데 한국산의 경우 0~9%, EU산은 무관세이며 부가가치세는 7% 또는 22%이다.

전문가들은 폴란드는 아직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만큼 발전여지가 많으며 이에 선진국보다는 케이블 수요증가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 가입준비 및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과 통신산업을 EU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에서 케이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지 생산이 안되고 있는 특수 케이블, 통신산업 및 IT산업 발달에 따라 수요증가가 확실시되는 통신용 케이블 등을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한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케냐, 가시적 경제회복 당분간 힘들듯

'98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계속되는 IMF의 구조조정자금의 공급중단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과 높은 이자율로 인한 금융부담으로 1.8% 성장에 그쳤다.

또한 '99년에는 1.4%를 기록하는 등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7년 7월 중단된 IMF원조재개가 2000년 회계연도 중 재개한다는 발표에 따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내 경제동향

분야별 실적을 보면 농업분야 실질 성장률이 '98년 1.0%에서 '99년 상반기 1.2%, 하반기 1.6%를 기록하다가 올 상반기 0.8%의 급감했으며, 제조업 분야 실질 성장률도 '98년 1.4%에서 '99년 상반기 1.0%, 하반기 1.2%를 보이다. 올 상반기 0.7%로 역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외에도 그나마 강세를 보여오던 무역, 호텔, 식당업 분야도 '98년 2.3%에서 '99년 상반기 2.0%, 하반기 2.5%를 보이다가 올 상반기는 1.9%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케냐내 전반적인 사업들이 심각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긴축예산과 열악한 인프라시설, 고금리, 대외원조 감소, 과잉 설비 등으로 투자가 계속 부진함과 2년째 이어지는 가뭄과 이에 따른 식용수 및 전기의 배분공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98년도에 비해 1.06% 감소했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98년 6.6%에서 '99년 3.5%로 안정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5.5%(5월), 5.9%(6월), 6.7%(7월) 등으로 다시 치솟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환율절하가 지연되고 있은 것과 장기화된 가뭄으로 인해 기본 식료품 공급이 현저히 줄어든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자율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정책으로 인해 '98년에는 정부의 91일 Treasury Bills 이자율이 26%대에서 15%대로 인하되었으나, '99년 12월에 20.0%를 기록해 인상 분위기였다가 올해 3월부터 11.3%를 기록하며 인하되는 추세이다.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IMF에서 원조재개 조건으로 내세웠던 케냐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추진등도 정부개혁정책에 부응치 못하고 지속 지연되어 앞으로의 추세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케냐중앙은행이 발표한 '99년의 잠정 경제 성장률은 1.4%로 '98년동기비 1.8% 더욱 낮아 경기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외거래 동향

'99년 대외거래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해 무역수지 역시 '98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수지는 '98년 4억6천만달러 적자에서 '99년에는 2억5,800만달러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케냐의 '99년중 총 수출은 17억5천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29억1천만달러에 달해 무역적자도 1억6천만달러로 확대되었다.

◇ 전력공급 불안

지난해부터 장기화된 가뭄은 케냐 전역을 강타해 극심한 수력자원부족과 기본식량공급 부족을 야기했으며,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행된 전력(총 발전량 중 수력의존도 67%) 및 물의 배분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체를 비롯해 산업, 경제, 무역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위기를 야기 시켰다.

◇ 올 하반기 전망

올 연말정도로 예측되었던 IMF원조재개가 지난 6월부터 재개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로써 당장 케냐 경제를 잠식해오던 전력부족으로 인한 생산부진 및 연쇄된 경제침체가 올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던 가뭄도 10월에 소우기에 접어들면서 간간이 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되어 경제회생에 한 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오는 2002년까지 케냐 전력공사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이 완성되면, 전력부족문제는 일단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F의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심각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인원 삭감, 케냐 항만청 및 통신공사 등의 민영화가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 시설로 인해 국내 및 해외투자가 저조한 사실을 감안 인프라 시설의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동아프리카 및 서부 아프리카 관계국들은 COMTEL을 주축으로 해 서로간 연결되는 지상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현재 3개국(독일, 프랑스, 스웨덴) 통신회사들이 입찰을 시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케냐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 요구사항들을 올 하반기동안 꾸준히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2002년 총선에 따른 개헌 등 정치적인 불안요소가 계속 산재하고 있는 점과,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유류파동이 장기적으로 악화되어온 케냐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상승 작용할 것으로 보여 가시적인 경제회복은 앞으로도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부 아프리카, 전력 · 통신 대형 인프라프로젝트 추진중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력 및 통신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실행될 경우 전력, 통신분야에서 낙후된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의 인프라가 현격히 개선되어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SADC(South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남부 아프리카 발전공동체) 회원국가간에 통합송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회원국간에 전력발전 공급원을 공유하게 되어 기상이변에 따른 전력공급불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가뭄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경제적인 타격이 큰 동부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가 크게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COMESA(남부 아프리카 시장 경제 공동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간 지상 통신네트워크 건설인 COMTEL 프로젝트로 2억2천만달러 상당이 소요될 예정이다.

COMTEL과 케냐 국영통신회사인 Telcom Kenya Ltd.는 이미 9월 20일자로 동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입찰에 들어갔으며, 이 프로젝트는 COMTEL Communications Company Ltd.가 전담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각 회원국의 NTO(National Telecommunications Operators)이 25%, 투자자들이 45%의 수익금을 공유하게 되며, 현재 입찰에 참가해 검토되는 회사들은 PQ Escom Enterprises(남아공), Nortel Dasa(독일), 그리고 World Tel/Tellas Swedtel(스위스와 스웨덴 합작회사) 등 3개사이다.

최근 Telcom Kenya Ltd.에 의하면 동 프로젝트와 관련 지분배분 문제로 인해 입찰재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향후 재 공고시 우리기업의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력, 통신 및 인터넷 등 인프라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어 경제개발 저조 및 외국인 투자 감소의 주요인이 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따른 산업개발과 윤활한 통신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역간 무역량의 확대와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슬로베니아, 광케이블 공급부족

생산업계의 예상치 못한 수요폭증으로 현재 광케이블 시장이 세계적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슬로베니아 시장만 해도 생산업체가 없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유럽 업체로부터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이 부족하자 한국으로부터 공급선을 찾고 있다.

케이블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업체들은 수요 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고 내년말까지도 공급부족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현재 재고가 없고 공급부족으로 내년 3월까지의 물량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급가격은 '98년 대비 200% 정도 상승했으나 이곳 바이어들은 아직 종전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어 공급업체와 바이어간 가격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산업체들은 예상하고 있으나 바이어들은 종전 가격으로 향후 수요 초과에 대비,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Telekom, Eles, Telemach 등 슬로베니아 광케이블 최종 수요업체들은 공급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여왔으며 수요가 매년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필요한 전기기기의 사용을 줄입시다.